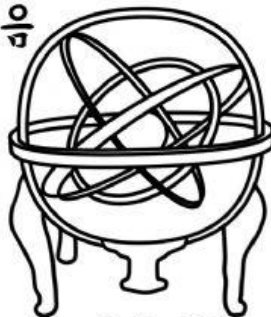


◎세종 대 과학 기술의 발전

- ▶ (): 세종이 고려 시대 여러 연구 기관을 확대 개편해 만듦
- 학문 연구를 위해 궁중에 설치한 기관으로 ()들을 키우고 과학 기구 발명에 힘씀. ()수집·보관·이용, ()활동, 왕의 ()에 대비 등의 기능을 함
 - (): 집현전에서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농사짓는 방법을 정리해 만든 책으로 각 지역 관리들에게 나눠줌
 - ()과 같이 신분이 낮아도 기술이 뛰어나면 관리로 뽑아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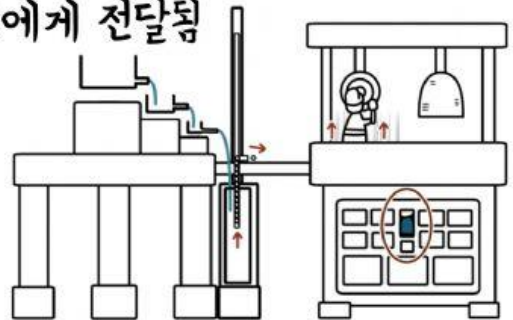
■천체 기구

- ():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 각 고을에 보급해 지역의 ()를 파악하고 ()을 걷는 데 활용함
- (): 우리나라의 천문 현상을 연구하고자 만듦. ()와 (), ()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음
- (): ()달력이 우리와 맞지 않자 조선 실정에 맞게 새로 만든 달력. 외국 사례를 연구하고 비교하여 만든 달력으로 현재 사용하는 달력과 비교해도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확함. 이로 인해 당시 여러 종류였던 달력들이 하나로 ()됨



■시간을 재는 기구

- (): 가마솥이 하늘을 우러르는 모양의 ()시계 라는 뜻. ()와 ()등의 큰길가에 설치해 백성들도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 시계. 글을 몰라도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을 새겨 넣음. 북극을 맞춘 반구 중심의 그림자는 ()에 따른 시간 변화도 고려해 24절기에 따라 달라짐
- (): 스스로 종을 쳐서 시각을 알려 주는 ()시계. 2시간마다 십이지 동물 ()이 종과 북을 울려 시각을 알림. 이 시각은 광화문에서 서울 시내 백성들에게 전달됨



- ※ 작동원리: 큰 항아리에서 흘러내린 ()로 원통 항아리가 차면, 원통 안에 있는 ()가 위로 떠올라 위쪽 ()을 떨어뜨리고 구슬이 기계 장치에 따라 종을 자동으로 울림

◎세종 대 문화의 발전

- '세종은 악기 소리를 듣고 ()이 맞지 않는 것을 바로 알았다'
- 예전부터 내려오던 음악을 ()실정에 맞게 고침

